

# 조선후기笠纓에 대한 연구

장 숙 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특임교수

## A Study on 'Ibye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ok-Whan Chang

Special Appointme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7. 20. 접수; 2008. 9. 21. 수정; 2008. 9. 29. 채택)

### Abstract

*Ip-yeong* or *gat-keun* decorate *heuk-rip*, supplementing its simplicity. When the wind blew, a dynamic beauty was created, especially if the *gat-keun* was made with long straps of jade or silk.

Basically, *ip-yeong* was a practical chin strap to hold the *gat* tight on the head. Commoners made *ip-yeong* by folding cotton cloth or fine gauze. However, as available materials became diversified, people used cloth, jade, agate, amber, coral, gold medallion, rock crystal and bamboo as well. *juk-yeong*, which was made with bamboo, became popular especially when Heungsun Daewon-gun, the father of King Kojong, decreed that people wear simple clothes.

Most records concerning *ip-yeong* in *Chosun-wangjo-shillok*, the authentic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re related to forbidding a sumptuous life. The book also suggests that *ip-yeong* was bestowed by the king or was offered to foreign diplomats as gifts.

*Ip-yeong* doesn't seem to be a unique system for Korea. Based on portraits or paintings where *ip-yeong* can be found, it seems to have been widely used during the Yuan dynasty and the Goryeo dynasty. The system disappeared in China as the Ming Dynasty was established, but it remained in use in the Korean Goryeo dynasty and through the Joseon.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same materials were used for *ip-yeong* from the beginning of Joseon to the end of the dynasty.

*Guyeongja* refers to a ring that connects an *ipja* to a chin strap. *Guyeongja* made with silver, bronze and jade still remain. In *gungjungbalgi*, the royal court inventory book, records of *imogarye* can be found (1882), where ten pairs of pure gold strap rings and ten pairs of gold-plated ones were used for a royal wedding.

**Key Words:** *Ip-yeong* (갓근, 笠纓), *Heuk-rip*(흑립, 黑笠), *Juk-yeong*(죽영, 竹纓), *Guyeongja* (구영자, 鉤纓子), The royal court inventory book(궁중발기)

---

Corresponding author ; Sook-Whan Chang

Tel. +82-2-3277-3752, Fax. +82-2-3277-4680

E-mail : Changsw@ewha.ac.kr

## I. 서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자 冠巾笠帽 중의 하나인 笠子를 장식한 笠纓과 鈎纓子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국내 연구 중 입자(흑립·주립·초립·전립 등)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진 선행연구는 대부분 입자의 기원과 종류, 수용과 변천, 흑립의 제조과정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입자의 부속물로 입영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입영에 관한 전반에 걸친 문헌고찰과 현존유물들을 비교 검토하여 조선시대 남자들의 두식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笠子の 笠纓은 笠飾[갓머리장식]과 더불어 조선시대 상류층 남자들의 멋을 집약한 특별한 장식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笠纓[갓끈]에 한정은 되었지만 남자 장신구의 일면을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방법은 입영의 유래와 종류, 입영의 착용형태를 문헌의 그림과 사진, 현존유물을 통해 확인하여 보았다.

또한 문헌고찰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일반 고문헌으로 나누어서,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입영에 관한 기사로는 사치금제에 따른 입영, 왕의하사품과 使臣의 진헌품인 입영, 무역품과 뇌물로서의 입영 등으로 묶어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鈎纓子[纓子]는 입자와 입영을 이어주는 고리를 말하는데 銀銅玉으로 만든 유물이 현재 남

아 있고, 문헌으로는 『궁중발기』에 순금과 도금의 구영자가 있다. 구영자의 종류와 특성을 몇 가지 표본유물의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였다.

## II. 조선시대의 笠纓

### 1. 笠纓의 種類 및 特徵

갓끈[笠纓]은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턱 밑에 매는 실용적인 끈이다. 일반 서민은 木棉이나 緞, 甲紗類로 접어서 만드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장식적인 욕구에 따라 천으로 만든 布帛纓은 물론 옥·마노·호박·산호·금패·수정 등으로 만든 珠纓 및 대로 만든 竹纓 등 다채로워졌다.

布帛갓끈은 갓을 쓰고 턱밑에서 매어 고정시킨 후 옷고름처럼 늘어뜨려 動的인 美를 보여 주며, 주영이나 죽영은 장식으로 길게 가슴 밑까지 내려뜨리고, 옥·도금·금·은·동으로 만든 구영자로 꿰어 갓에 달았다.

또한 길이가 긴 구슬갓끈[珠纓]은 한쪽을 두 겹으로 돌려서 만들어 고정 시키는 등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惠園 申潤福의 풍속도 「聽琴賞蓮」의 두 남자의 갓끈은 당시의 구슬갓끈을 매는 방식을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 갓끈 길이가 매우 길어 허리 밑까지 늘어지거나, 한쪽으로 둘둘 말아 붙이기도 하였다(그림 1).

傳 金弘道の 『平生圖帖』이나 『回婚禮圖帖』에



<그림 1> 「聽琴賞蓮」 間松美術館 所藏



<그림 2> 慕堂 洪履祥 平生圖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서는 기력아비가 신랑의 初行에 團領에 朱笠을 쓰고 구슬갓끈을 매고 있다. 갓끈을 매는 방식은 <그림 1>의 두 주인공과 같다. 특히 『回婚禮圖帖』의 기력아비는 흑립 왼쪽에 붉은 꽃 한 송이를 꽂고, 珠纓을 좌측으로 두 번 돌려 매었다.

淡窩 평생도 六曲屏 第一面의 三日遊街 장면에서도 대청에 앉아있는 주인인 듯한 인물이 홍색의 패영을 좌측으로 두 번 감은 것이 보인다.

반면에 평양감사 환영도에서 監司는 청색칩리 용복차림에 貝纓을 우측으로 두 번 감아 매었다.

慕堂 평생도에는 주인공 판서가 布帛의 입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판서를 보필하여 인도하는 자는 貝纓을 두 줄로 오른쪽에 감아 매었다(그림 2). 이상에서 볼 때 두 줄로 감아 맨 패영의 左右 방향은 자유인 것 같다.

이로써 笄纓도 貫子和 마찬가지로 품계가 높은 자 일수록 검박한 布帛으로 하고 사대부라도 한량이나, 별감, 기력아비와 같이 외모를 꾸며야 하는 자나, 용복차림에 監司와 같이 격식을 차려야 할 때는 패영으로 멋을 낸 것 같다.

이처럼 갓끈은 끈의 기능보다 장식에 치중하게 되어 사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현전하는 영자의 종류는 玳瑁纓·蜜花纓·錦貝纓·象牙纓·水晶纓·珊瑚纓·琉璃纓·竹纓·烏竹纓·木纓·蠟造密花珊瑚纓 등 종류가 다양하다.

갓끈의 樣式과 構成은 패옥 자체로서 주영양식으로 꾸민 것도 있으며 대[竹] 혹은 나무로 길쭉하게 만들고 사이마다 나무 또는 珠貝로 격자를 달고 끝에는 비단 방울술이 달린 것도 있다.

玳瑁笄纓은 작은 구슬을 연속으로 꿰 것도 있고, 막대모양의 管玉과 작은 구슬을 번갈아 꿰고 한 가운데는 원형 혹은 육각형 등의 나무판이나 대모판을 배치해 垂飾효과를 강조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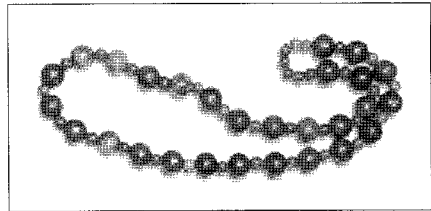
길이가 긴 것일수록 장식적인 효과를 내었고 양 끝에 달린 술은 움직임 때 흔들림으로써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보여준다.

문헌에 나타난 갓끈은 신분이나 갓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에는 1품에서 3품까지 금·옥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나무 구슬을 꿰어서 갓끈을 제작하는 장인인 木纓匠을 工曹에 4인을 두고 있었다.

또한 『續大典』에는 용복에 당상관은 紫笠에 貝纓, 당하관은 흑립에 晶纓이었는데, 『大典會通』에서는 貝纓·晶纓은 폐지되었다.

『高宗實錄』에는 고종 1년(1864)에 “지금부터 조신의 戎服 중 철릭은 이전과 같이 품계에 따라 만들고, 호수·주립과 패영은 영원히 제거하고 漆絲笠으로 마련하라”고 대왕대비가 전교하였다.<sup>1)</sup> 그러나 고종 11년(1874)에는 장복은 보기 좋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조신들의 용복에 쓰는 주립·호수·패영은 모두 구례대로 하라고 慈殿[대왕대비]이 다시 고쳐 명하였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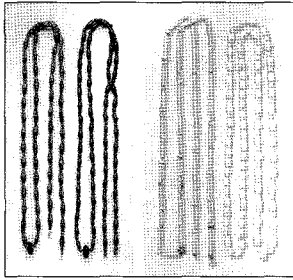
戰笠에는 굵은 밀화 구슬에 작은 산호 구슬을 번갈아 꿰어 단 밀화패영이나 밀납으로 만든 蠟造蜜花珊瑚纓을 달았다(그림 3). 그런데 哲宗御眞을 보면, 竹戰笠에 밀화패영을 구멍자로 연결시킨 것이 확인되는데 현전하는 일반사대부의 죽전립에는 대모영을 달았다.



<그림 3> 蠟造密花珊瑚纓  
梨花女大 滄人服飾美術館 所藏

검은 나무 갓끈[黑木纓]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탈상에 이르기 전까지 五十竹 黑草笠에 매었다고 하며<sup>3)</sup> 흑목영은 나무를 깎아 만든 구슬에 烏漆을 한 것으로, 橢圓形 木實形의 큰 구슬과 작은 구슬을 번갈아 배치한 것이다. 상아·마노·산호·대모 등으로 만든 갓끈은 금·은·옥으로 만든 갓끈 고리[鈎纓子]로 꿰어 갓에 달고 가슴 밑으로 길게 늘어뜨렸다. 조선시대 상류층 남성들의 멋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장식품이었다(그림 4).

興宣大院君 집정 시에는 의관문물의 간소화 시책에 따라 대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여 한때 대갓끈[竹纓]이 유행한 일도 있었다.<sup>4)</sup> 현전하는 갓끈 유물 가운데에도 죽영이 많이 남아있다(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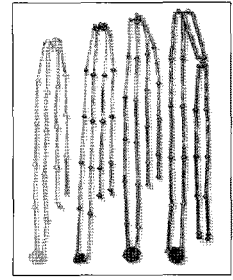
<그림 4> 木·象牙 갓끈[笠纓]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5> 權沂洙 肖像畵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그림 6> 黑笠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7> 竹纓·玳瑁纓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표 1>은 이화여대 담인복식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표본유물 20점을 선정해서 입영의 종류와 크기를 비교해 보고, 관옥과 구슬에 배합 그리고 중심 판의 형태를 고찰하기로 한다.

2.笠纓의 유래

『備齋叢話』에는 고려말기辛禡가 산호 갓끈이 달린 자신의 모자를樵童의 상수리 갓끈이 달린

<표 1> 笠纓의 종류와 크기

分類番號	名稱	材料大分類	材料小分類	年代	規格(cm)長	備考
1	竹笠纓	木	竹	朝鮮	81.0	白骨圓形裝飾, 白骨구슬
2	"	"	"	"	73.3	白骨8角形裝飾, 白骨구슬
3	"	"	"	"	70.3	木6角形裝飾, 木구슬
4	"	"	"	"	65.7	白琉璃圓形裝飾, 白琉璃구슬
5	"	"	"	"	51.5	黃琉璃圓形裝飾, 黃琉璃구슬
6	"	"	"	"	48.0	木多面體裝飾, 木黃琉璃구슬
7	"	"	"	"	62.5	黑琉璃圓形裝飾, 黑琉璃구슬
8	木笠纓	"	참나무	"	72.0	木圓形裝飾, 褐色多面體와 圓形구슬연결
9	"	"	소나무	"	59.0	黑褐色雙圓形구슬연결
10	"	"	오동나무	"	93.0	軟褐色大小구슬연결
11	"	"	대추나무	"	91.0	小木圓形裝飾, 褐色小구슬연결
12	"	"	"	"	62.5	黑色木圓形裝飾, 褐色小구슬연결
13	"	"	소나무	"	48.5	黑色木圓形裝飾, 黑色棗形 圓形구슬연결
14	蜜花笠纓	琉璃寶石	蜜花	"	28.0	棗形蜜花 31個  연결
15	玳瑁笠纓	骨角貝甲	玳瑁	"	72.5	小玳瑁구슬연결
16	"	"	"	"	62.0	6角形玳瑁裝飾, 긴대롱형과 圓形의玳瑁구슬연결
17	象牙笠纓	象牙	象牙	"	67.0	象牙色圓形裝飾, 象牙色圓形 구슬연결
18	"	"	"	"	69.0	象牙色긴대롱형과圓形구슬연결
19	黑角笠纓	黑角	黑角	"	72.5	褐色角圓形裝飾, 褐色角긴대롱과 圓形구슬연결
20	角笠纓	角	角	"	55.0	軟褐色긴대롱형과圓形구슬  연결

모자와 바꾸는 이야기가 있으며, 董越의 『朝鮮賦』에는 백성들은 초모를 쓰되 턱에 모두 구슬을 늘인다고 하고 있다. 고려말기의 李兆年(1269~1343)과 그 아들 李褒의 초상화에는 턱수염 밑에 걸리는 길이가 짧은 구슬갓끈과 圓頂簷廣(帽屋이 둥글고 양태가 넓음)한 갓이 보인다.

李兆年은 고려 말의 명신으로서 畫像은 홍색 직령포에 붉은 세조대를 띠고 笠子를 썼다 이 입자는 당시 元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던 鈹笠으로 형성시의 갓 형상과 유사하다. 턱수염을 지나는 짧은 갓끈은 玉製에 珊瑚格子인 것 같다(그림 8).<sup>5)</sup>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고려시대 瑪瑙, 연두색 琉璃, 玉으로 된 갓끈은 이조년과 이포의 갓끈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그림 9).

『大東韻府群玉』에 “筆苑에 光廟가...일찍이 내전에 있을 때는 純木을 사용한 갓끈을 매었다.”는 부분으로, 6) 왕도 검소한 갓끈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高麗史』<sup>7)</sup>와 『高麗史節要』에는 서민과 중의 갓끈 사용 금제가 있다.

조선 초기의 학자 李賢輔(1467~1493)·金璣(1500~?)의 초상화에서는 笠制가 전보다 위가 뾰족해지고 길이가 길어진 갓끈을 볼 수가 있다. 이현보의 畫像은 위가 뾰족한 平涼子를 쓰고 담홍포를 입은 전신부좌상이다<sup>8)</sup> 먼저 평양자의 형태를 보면 조선시대의 입제가 成宗代에 圓頂簷廣하던 것이 燕山君代에 와서는 위가 뾰족해진 형태를 취한다는 입제의 변천에 부합된다. 갓끈도 길어졌고 재료는 瑪瑙에 珊瑚 格子로 보인다(그림10).

李瀼은 『星湖僊說』에서, 옥영과 방축영에 관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左傳』에, ‘楚나라 子玉은 瓊弁에다 玉纓을 달았다.’ 하고 그注에, ‘이는 玉으로 갓끈을 꾸민 것이고 玉을 끈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옥 이전에는 玉으로 갓끈을 꾸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莊子』에는, ‘갓에다 曼胡라는 갓끈을 드리웠다.’ 는 문구가 있으니, 이는 대개 만호라는 구슬을 실에 꿰어서 만든 것인 듯하다. 우리나라 초기의 풍속은 상고할 수 없으나 다만 金寒萱은 蓮子纓을 사용하였다. 蓮子란 못에서 나고 못은 속명으로 防築이라고 하는 까닭에 이 蓮子纓을 防築纓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변하여 琥珀과 玳瑁 등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이 연자영이란 이름만은 고치지 않았다. 이로 본다면 이 연자영보다 더 나은 갓끈이 없었다고 보니, 옛날 검소한 풍속은 이와 같았다.”<sup>9)</sup>고 하였다. 즉 蓮子[연밭] 갓끈을 寒萱堂 金宏弼(1454~1504)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후 호박·대모 갓끈도 모양이 연자와 유사하면 연자영이라 부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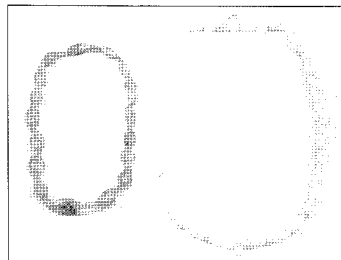
『星湖僊說』에서는 계속하여 “갑[紵] 등의 비단은 여름이 되면 땀에 젖어 떨어지기 쉬우므로 후세에 호박·대모·수정·금패 등을 갖지 않은 이가 없으니 날로 사치해진다.”고 한탄하고 있다.

현전하는 水晶 갓끈이나 水瑪瑙 갓끈은 현대 여성의 목걸이와 아주 흡사하며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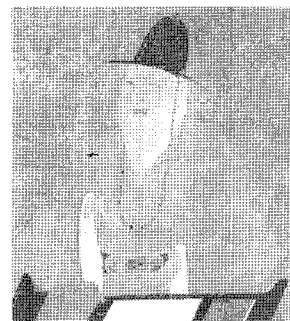
앞서 『續大典』에는 당하관이 용복의 흑립에 수정갓끈을 착용한다고 하였고, 世宗 24年(1442)에는 鄉吏들의 마노 갓끈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睿宗 元年(1469)에는 庶人의 마노 갓끈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정과 마노의 입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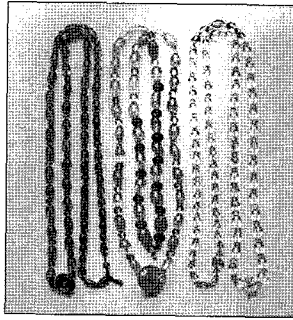
<그림 8> 李兆年 肖像畫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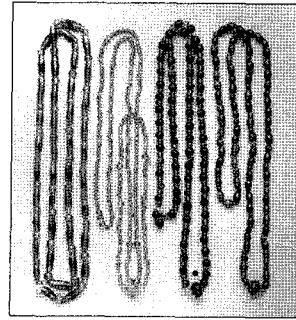
<그림 9> 高麗時代 갓끈(笠纓)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그림 10> 李賢輔 肖像畫  
『韓國의 美』 20



<그림 11>水晶·水瑪瑙笠纓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그림 12>琉璃纓·黑褐色石纓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은 조선초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애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

燕山君 7년(1501) 경부터 채굴되기 시작한 珠玉類에는 白水晶·紫水晶, 慶州의 白水晶·水瑪瑙·火瑪瑙 등이 있었다. 특히 楊洲 檜巖寺의 紫水晶, 경주의 白水晶·水瑪瑙·火瑪瑙가 유명하였다. 다음 <그림 11>의 갓끈 길이는 52cm~57.5cm 이다.

이밖에 갓끈 재료에는 琉璃가 있는데 서민층 호사가들이 대모를 모방해서 만든 琉璃玳瑁 갓끈이 흥미롭다. 또한 나무와 유리를 구슬로 만들어 격자로 꿰어 만든 것도 있고, 돌을 갈아 蓮子形으로 만든 수공예품 갓끈도 있다(그림 12).

이처럼 계절이나 갓의 종류에 따라 갓끈의 모양이나 재료를 달리하는 등, 사치스러워지자 금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 III. 文獻에 나타난 笠纓

#### 1.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笠纓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笠纓에 관한 기사는 사치금제에 따른 笠纓, 왕의 하사품과 使臣의 진헌품인 笠纓 그리고 뇌물로서 笠纓과 무역품목의 笠纓으로 대별할 수가 있다. 당시의 갓끈의 실체를 『朝鮮王朝實錄』과 고문헌에서 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太祖 1年 9月조에는 왕이 편전에서 개국공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각기 기공고서 1통과 錄券·金帶·銀帶·옷감의 걸감과 안짚을 차등

게 내려주고, 侍中 裴克廉·趙浚에게는 高頂笠·玉頂子·玉纓具를 특별히 내려 주었다. 즉 옥갓끈을 갖춘 고정립을 하사한 것이다.

太祖 3년 6月 都評議使司에서 아뢰기를, “이제 임금이 되신 초두에 있어서, 의복과 기구와 패물 등을 만들어 쓰는데 검소하고 간략하도록 힘써서 자손만대에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承旨 이상 이외에는 金이나 玉으로 만든 갓끈을 달지 못하게 하고, 油密菓와 絲花鳳·金銀簪·彩花草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이외에는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sup>10)</sup> 하여 緋緞眞彩와 金·은·옥 등의 물품은 궁중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직품에 따르는 禁制에서 같은 해에 도평의사사에서 예조가 상정한 장계를 갖추어 아뢰기를 진상하는 의식용품 이외에는 신하들은 金을 쓰지 못하고, 의정부와 중추부 이외에는 명주와 비단과 玉纓子·玉環子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sup>11)</sup>

또한 太祖 6년에는 초립과 玉纓子를 하사하고 있다. 좌정승 趙浚에게 초립과 옥영자를 내리고, 봉화백 鄭道傳과 의성군 南閔에게 초립을 내렸다.<sup>12)</sup>

太宗 11년에는 사신의 선물과 이에 대한 왕의 답례 기사가 있는데, 사신의 선물 목록에 玉纓子가 보인다. 임금이 太平館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鞍馬를 준다. 이튿날 사신이 두목 한 사람을 시켜 龍眼·荔枝 및 琥珀帶·香帶·紈扇·玉纓을 바치니, 임금이 친히 받는데 使命을 공경한 것이다. 두목에게 苧布·麻布 4필을 준다.<sup>13)</sup>

世宗 8年(1426) 8월에 전 총제 이명덕이 太宗이 하사한 총마를 武官 사위 홍치에게 주었던바 홍치가 이 말을 좋아하는 김효지의 珊瑚纓子와 이 말을 서로 교환하였다는데 당시 산호갓끈이 좋은 말과 가격이 비등한 것을 알 수가 있다.

世宗 8年(1426) 8월에 제주목사 조희정은 衙內에 들어와 일하는 皮匠이들로 하여금 진상한다는 핑계로 민간사람의 진주 귀막이를 거둬들이게 하였으며, 私奴 김녹에게서 玉으로 만든 纓子를 받고서 김녹을 私婢 식분과 강제로 혼인시킨 일도 있었다.

世宗 11年(1429)에는 사헌부의 각종 禁止案 상소 가운데 “사헌부에서 啓하기를, 공인·상인·천인·하예들은 眞水精이나, 珊瑚로 만든 纓子와 雲月兒의 착용을 금지한다.”<sup>14)</sup>고 하였다.

世宗 20年(1438) 4月條에는 鄉吏의 공복에 대모혹서대 착용과 戶長의 옥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고려의 옛 제도를 따라 큰 고을의 향리들은 으레 犀帶·象笏·玉纓·玉環 등을 착용하였으나 본조에 와서는 모두 이를 금지한 것이다.<sup>15)</sup>

이와 같은 조치는 지방 향리들의 지위를 하강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국초의 중앙집권 강화의 일환이 되었다.

또한 世宗 24年(1442)에는 “瑪瑙로 環子·갓끈·雲葉兒를 만들어 갓의 장식물로 하는데 지방의 향리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하여 향리의 마노 사용을 일절 금하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玉石·燐玉 및 瑪瑙 등으로 만든 갓끈은 堂上官 이상에게만 허용하고, 향리에게는 옥·마노는 물론 산호·수정으로 만든 것조차 금하고 일찍이 하사하였던 玳瑁角帶도 회수하는 기록이 있다.<sup>16)</sup>

世宗 28年(1446)에 의정부에서 복색 상정 조건을 아뢰었으므로, 집현전에서 의논하기를, “제 일조에 공·상·천예·향리는 목면·면주·저포를 八升 이하를 쓰고, 교의초자·眞水晶·珊瑚纓子·雲月兒를 쓰지 못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유품조사와 유음자제 이외에는 또한 眞珊瑚纓子·운월아·眞水晶 纓子 등의 물건을 금한다.”<sup>17)</sup>고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睿宗 元年(1469) 7월에는 복색·장식·교자 등의 제도 상정이 있는데,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庶人의 紅紫衣 와 복교기초·珊瑚·瑪瑙·琥珀·明貝·靑金石·笠纓子·笠飾釵·등자·황동사건·사피를 금하게 하라는<sup>18)</sup> 요구에 그대로 따랐다.

成宗 1年(1470) 7월에 私奴 홍말생은 김정광에게 明珀纓子 1케미, 矢服 1벌 등을 뇌물로 바쳤고, 사노 우질지는 김정광에게 瑪瑙纓子 1케미를 뇌물로 주었으며, 종 시라손은 김정광에게 白草笠 1정, 烏梅纓子具, 綿匹 2匹 등을 바쳤다. 명박영자·마류영자·오매영자 등 각종 갓끈이 뇌물로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成宗 5年(1474) 7월에는 공조와 상의원에 전지하여, “주문사 金碩에게 黑氈笠 香纓子具 1벌, 아칭 필단 초피이엄 2벌 등을 내려주게 하다.”<sup>19)</sup>라고 하여 주문사 일행에게 내린 하사물에 흑전립에 달린 향영자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成宗 7年(1476)에는 주문사 청송부원군 심희[沈滄]에게 내린 하사물에 흑전립 沈束香纓子具—<sup>20)</sup>이 보인다.

燕山君 6年(1500) 正月條에 보면, 의정부에서 珊瑚笠纓 20개를 무역해 오라는 전지에 대하여 이를 정지해 달라고 하자, 연산군은 “산호입영은 왕 자녀 가례에 필요한 것이니 일시에 무역해 오기 어려우면 가례 때마다 무역해 오면 좋을 것”<sup>21)</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사치품의 하나로 여러 종류의 입영을 무역해 와서 사용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中宗 9年(1514)에는 白玉纓子, 白玉笠飾, 琥珀纓子, 황백사 등도 많이 무역해 들인다고 하나 이런 물건들은 중국에서도 희귀한 물건이니, 모두 감해서 무역하고 笠飾, 纓子 등은 있으면 사오고 없으면 꼭 사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고 있다.

燕山君 8年 6月 혼인의 사치 금지에 관한 사헌부의 啓에 지금부터 채단과 침구에 사라·능단을 쓰는 사람과 갓끈에 珊瑚·琉璃·明珀를 사용하는 사람은 堂上官의 자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금단하도록 하고 있다.<sup>22)</sup>

이와는 반대로 燕山君 10年(1504) 10월에는 왕으로부터 입영에 布帛을 쓰자는 의견이 나와 한때 珠纓이 폐지된 일이 있었다. 즉, 왕이 강무시 입영에 포백을 사용함이 어떠한가 하면서 “중국인은 본래 주영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금



<그림 13> 元 憲宗(在位: 1208-1259)  
『中國織繡服飾全集』



<그림 14> 元 仁宗(在位: 1311-1320)  
『中國古代服飾研究』

일 尹世霖이 賜酒 時 주영을 하고 들어왔음은 불가하다.”함에, 승정원에서 계하기를 “董月の 『朝鮮賦』에도 瑛珠를 나무라고 있으니 주영을 하지 않음이 마땅하다.”하여 포백으로 대신하게 하였던 것이다.<sup>23)</sup>

그러나 中宗 3年(1508) 正月條에는, “珠纓을 다시 쓰고 있음에 執義 慶世昌이 상언하기를 燕山君의 법제가 비록 일정함이 없지만 입영을 포백으로 고친 것은 간편하게 한 일인데 소용도 없는 물건에 지나치게 비싼 값을 주고 있으니 주영제도를 폐지함을 청합니다.

중국 사람이 그 턱 아래에 드리운 구슬을 기롱하고 있으니 중원사람이 갓끈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니 이에 중종은 “입영이 비록 華制가 아니라 하나 我朝에 화제를 쫓지 않는 것이 파다하니 반드시 다 고칠 필요는 없다.”<sup>24)</sup>고 하면서 포백으로 돌아감을 불허하였다.

즉 갓끈의 재료로 구슬대신 포백을 사용하고 중국에도 없는 주영을 폐지하자는 것인데 결국 입영 폐지는 실패하고 입영에 珠纓은 조선말기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림 13>과 <그림 14>의 원나라 황제의 초상화에서 귀 뒤에서부터 턱 밑에 이르는 화려한 격자 구슬이 笠纓이 아닌가 한다.

이를 볼 때 갓끈이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한 제도가 아닌 것 같다. 현재까지 笠纓이 나타나는 초상화나 회화로 미루어 볼 때 元나라와 高麗에서 유행하던 제도였으나 明이 건국되면서 중국에서는 사라지고 고려에만 남아 조선까지

그 풍속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인 中宗 3年(1508) 正月에도 “입영의 값이 몇대로 높아지니 폐하자.”는 주청이 있었고, 11년(1516)에는 越境하는 자가 “燕山君 代에는 갓에 纓子가 없어서 산호 따위 물건을 사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갓에 영자가 있어서 산호를 많이 사오니 중국으로 들어가는 銀이 많은 것이 이 때문이다.”<sup>25)</sup>하고 이에 금지를 논하고 있다.

또한 中宗 17年(1522)에는 예조에서 신분에 따른 각종 복식 금지를 논하는데 근래에 사치풍조가 더욱 심하여 상하를 막론하고 복식에 있어서 중국물품쓰기를 경쟁하므로 이 때문에 물가는 뛰어나고, 冒利하는 무리들이 몰래 禁貨를 가지고 가 上國과 무역을 하며, 가난한 자는 사치 풍속 때문에 혼인의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갓은 鬃笠에 있어서는 당상관 외에는 모두 금하시고, 附竹笠·繩笠·나과립[羅裹笠]에 있어서는 학생과 서민들과 工·商들이 쓰지 못하게 하시고, 瑪瑙·琥珀·珊瑚·靑金石 갓끈과 은장도 등은 당상관 외에는 일체 금하게 하기를 촉구하고 있다.<sup>26)</sup>

그런데 中宗 31年(1536)에는 法司에서 유생들이 말을 타고 입참하는 폐단이 있음을 듣고 이를 엄격히 금지시키므로 유생들이 武士로 가장하여 水精纓 차림에 하인에게 弓矢를 들리고 館學門 근처에 이르러서 말에서 내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武士의 하인이 수정갓끈을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宣祖 36年(1603) 6月에는 중국 사신 고천준이



일찍이 銀을 주며 纓子를 사오라고 해놓고는 纓子를 구하게 되자 도로 그 銀을 빼앗아 갔다. 왕이 중국은 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同知事 심희수가 念珠로 쓴다고 답하고, 송언신은 궁녀들에게 뇌물로 준다고 말한다. 중국 사신이 조선에서 구입한 纓子의 용도가 흥미롭다.

사치 금지와 선왕 儉素 例에 관한 筓子에서 “옛 사람의 말에 奢侈의 禍는 天災보다도 심하다. 천재는 비록 참혹하기는 하나 아득하고 멀어서 그 재앙이 언제 있을지 기약이 어렵지만 사치의 폐해는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병들게 하여 그 화가 당장 나타난다 하였습니다.……우리 世宗大王은 궁중에서 항상 木棉으로 만든 옷을 입으셨고, 世祖大王은 늘 순무명 갓끈을 매셨으며, 成宗大王은 항상 세탁한 襦衣를 입으시어 아랫사람을 겸소한 생활로 이끌어서 백성들이 부유하게 되도록 하였습니다.”<sup>27)</sup>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갓끈의 사치 금제에 관한 실록의 기사는 조선 초기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국가의 기반을 닦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다. 英·正祖시대의 笠纓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다.

『國婚定例』에는 英祖시대의 왕자가례에 있어서의 徽氏는 초록면포협액주은 면주유접리 黃草笠에 [木纓子를 단다] 網巾 [錫貫子를 단다]을 쓰고 牽馬火도 같다. 조예는 청면포단단령에 홍면포대를 하고 조포두건[두석소경]을 쓰고 있다고 하여 징씨와 견마부의 복식에서 황초립에 나무 갓끈을 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正祖 15年(1791) 4月 壬戌條에 의하면 “甁笠의 纓子로는 모두 正蜜花를 사용하였고, 당상관의 冠纓으로는 琥珀을 사용하는데 근래 사치의 풍습이 성행하여 귀천의 분별이 없으니 당하관은 호박의 사용을 일체 금단하고 紫珊瑚와 紫水晶을 대용하도록 하였다.”<sup>28)</sup>는 내용이 있어, 正祖代의 전립의 패영에 대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기록이다. 자만호와 자수정이 당시는 정밀화나 호박보다 격이 떨어짐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또한 정밀화와 호박에 재료가 현재는 같은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두 가지를 다른 물품으로 취급한 것 같다.

正祖 24年(1800) 1月조에는 상이 전교하기를, 나의 冠禮 때에 썼던 蜜花纓子가 있는데, 규격

은 비록 작으나 대체로 검박하게 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것은 慈宮께서 친히 싸두시었으니, 이번에도 이것을 쓰려고 한다. 하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내보였다. 正祖 觀례 시 밀화영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高宗代의 입영에 관한 기사는 전술한 바도 있지만 高宗 元年에 대왕대비의 전교로 “조신의 융복중 철릭은 이전같이 품계에 따라 만들고, 호수와 패영은 영원히 제거하고 칠사립으로 마련하라.”<sup>29)</sup>하였는데 십년 후인 高宗 11年(1874)에는 조신들의 융복에 쓰는 호수·주립과 패영을 구례대로 하라고 하고 있다.<sup>30)</sup>

高宗 21年(1884) 예조에서 만든 私服變制節目 중에 “笠纓은 狹小하게 짜서 쓰되 紗 혹은 帛, 紬를 사용하여 뭇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남아서 늘어지게 할 수 없다.”<sup>31)</sup>는 규정이 보인다. 즉 입영의 재료와 크기를 정해주고 있다.

## 2. 古文獻을 통해 본 笠纓

다음은 일반 고문헌에 보이는 笠纓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牧民心書』에 목민관의 청렴과 의복에 관한 내용은 “『寒巖瑣話』에 참관 柳炯이 충청도 감사가 되었을 때, 밀로 密華를 만들어 貝纓을 삼으니, 列문이 두려워하여 그 청렴하고 검소함에 복종하였다.”는 것으로 自家生産한 蠟造蜜花 貝纓의 元祖가 아닌가 한다.<sup>32)</sup>

『四禮便覽』 納幣時 諸具에서 “擔幣者 [패백을 가지고 가는 사람]는 시속에서 史僕이 한다. 笠子·珠纓·團領·帶·靴로 성복한다.”<sup>33)</sup>고 있어 담배자의 차림에 주의를 맨 입자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梅泉野錄』에 “良齋 田愚는 그의 문인에게 모두 심의·복건·치포관을 걸치게 했으며 비록 일을 할 때라도 벗지 못하게 했다. 또는 竹纓을 매고 木屐을 신고 이상한 복장을 차렸다.”<sup>34)</sup>고 하여 田學者의 문인들의 복장에 즐겨 죽영을 맨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靑莊館全書』에는 각종 복식의 착용법이 있다. 그 가운데 “적삼에는 수건을 달되 길게 해서 안 되고, 笠子에는 끈을 매되 넓게 해서 안 된다.……입자에 竹纓을 드리우는 것은 간결하다. 그러나 시골에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마

망하지, 도시에 다닐 때는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sup>35)</sup>

漢語 학습서인 『老乞大』는 주로 商賈의 실용 회화를 다룬 것으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간본을 편찬하였다. 여기에는 冠帽·衣·帶·신발 등의 복식 관련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老乞大』에서 보이는 입영에는 燒珠兒·燒琉璃珠兒·瑪瑙珠兒·紅瑪瑙珠兒·琥珀珠兒·玉珠兒·香串珠兒·水精珠兒[水晶珠兒]·珊瑚珠兒 등 9종류가 있다(표 3).<sup>36)</sup>

笠纓은 갓끈을 뜻한다. 『老乞大』에서는 珠兒가 ‘갓끈’·‘갓끈’ 또는 ‘구살’로 나타난다. 『譯語類

解』에서는 珠子가 ‘구슬’, 帽珠兒는 ‘갓끈’으로 이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아·주자는 본래 구슬을 나타내는 한자어이지만 모자의 끈의 뜻으로도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老乞大』에 나타나는 주아의 종류는 소주·소파리·마노·홍마노·호박·옥·향관·수정·산호 등이 있다. 또한 燒珠는 ‘구은구슬’로 이해되는 것으로 소자주아라고도 한다. 燒琉璃는 ‘구은 파리’로 이해되었다. 유리를 뜻하는 파리는 梵語의 음역으로서, 유리가 玉으로 간주되어 ‘옥’을 덧붙여 파리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소주의 언어 형태나 소파리와 대응되는 문장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燒珠 역시 유리의 일종으로 생각된다.<sup>37)</sup>

<표 3> 『老乞大』에 나타나는 笠纓

	原老	剛改-老諺	老新-重老諺
笠纓	燒珠兒, 瑪瑙珠兒, 紅瑪瑙珠兒, 琥珀珠兒, 玉珠兒, 香串珠兒, 水精珠兒, 珊瑚珠兒	燒珠兒, 瑪瑙珠兒, 琥珀珠兒, 玉珠兒, 香串珠兒, 水精珠兒, 珊瑚珠兒	燒琉璃珠兒, 瑪瑙珠兒, 琥珀珠兒, 水精珠兒, 珊瑚珠兒

<표 4> 『궁중발기』에 나타난 笠纓 <sup>38)</sup>

笠纓	수량	출처	笠纓	수량	출처
산호죽절과영	일건	임오가례(1881) 「신소오월나각순 브텀블기」	밀리옹복과영	녹별	임오관례, 가례시(1882) 「임오관례시가례 시폐물블기초츠 갑인년창덕궁의 보느   오실블기」
산호쥬과영	일건		밀리독절과영	칠별	
금패쥬과영	삼건		밀리쥬과영	일별	
금패죽절과영	이건		밀리군복과영	삼별	
밀리죽절과영	이건		산호쥬과영	이별	
밀리쥬과영	삼건		산호군복과영		
대모죽절과영	이건		금패쥬과영	녹별	
옹복과영	삼건		금패죽절과영	십일별	
군복과영	삼건		금패전넙과영	일별	
戎服貝纓 軍服貝纓			병인가례시추정(1866) 「가례시운현사랑택」	즈만호전넙과영	
錦貝竹節纓	일건	「文房裝身具件記」	어모독절과영	삼별	
(전넙)과영 (戰笠)貝纓		「병인이월온산송악별 괴도고관진적발기」 「笠子件記」	(草笠)貝纓		「괴특스월산가는 불기」 「임진구월산드은드 드   소입블기」
(朱笠)貝纓		「괴특스월산가는 불기」 「임진구월산드은드   소 입블기」			

즉 주아·주자의 뜻이 원래는 구슬을 나타내지만 ‘모자의 끈’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고, 『老乞大』에 보이는 주아의 종류와 소주의 뜻을 풀어내고 있다.

『궁중발기』에 보이는 笠纓[갓끈]의 재료는 산호·금패·밀화·대모·자마노·대나무·어모 등이다. 壬午嘉禮「대비브림」(1881)에는 珊瑚竹節貝纓(죽대롱에 산호구슬을 사이사이에 끼운 것)과 珊瑚珠貝纓(산호구슬로 만든 것)과 같은 2가지 형태의 금패·밀화·대모 입영이 있다.

임오관례, 가례시(1882)에는 밀화용복패영·밀화군복패영·금패전립패영·자마노전립패영이 있다. 이를 보전대 戎服朱笠에는 밀화패영을 달았고, 軍服戰笠에는 밀화패영·산호패영·금패패영·자마노패영을 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의 입영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군복전립에 여러 가지 옥석패영을 달아 화려하게 꾸민 것이 특이한 점이다. 밀화·산호·금패·자마노는 자국생산품이 없어서 중국에서 무역을 해온 것 같다.

전립·주립·초립에도 패영이 있으며, 丙寅嘉禮(1866)로 추정되는 시기에는 용복패영·군복패영·금패죽절영이 보인다.

### 3. 현전하는 笠纓 遺物

조선시대의 세탁풍속은 여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갓끈만은 예외로 남성들의 차지였으니 조선 초기 학자들의 詩 가운데 갓끈을 씻는다는 구절이 종종 보인다.<sup>39)</sup>

즉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死六臣의 한 사람인 박팽년(1417-1456)이나 서거정(1420-1488)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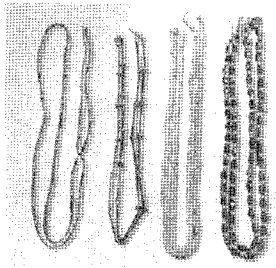
詩가 있다. 중국 楚나라 시인 屈原의 유명한 「楚辭」중 나오는 ‘漁夫’라는 노래에 “滄浪의 물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 흐르면 나의 발을 씻으리”인데, 세상이 道를 행해 맑고 깨끗하면 벼슬길에 나갈 것이고, 세상이 탁하면 발을 씻고 떠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기서 갓끈을 씻는다는 것은 선비들의 풍류라기보다는 현실참여를 비유한 뜻인 것 같다.

실제로 高價의 갓끈을 소중히 여기어 물로 세척하여 보관하였다. 갓끈을 보관하는 여단이 형식으로 밀고 여는 煙草函처럼 생긴 목 갓끈집이 있고, 또한 갓끈 누비 주머니에는 구슬의 수량까지 적어 보관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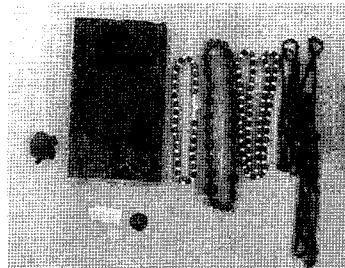
한편 佩物匠 金錫昌의 傳言에 의하면, 패물장들이 만드는 재료는 호박·금패·밀화·대모·산호 등이며 물건도 갓끈·풍잠·가락지·장도·단추·관자·백팔염주 등이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대모는 ‘竹節 갓끈’으로 많이 썼었다고 한다. 양반들이 품계에 따라 여름에는 밀화 또는 대모갓끈을 썼던 것이다. 대모갓끈 만들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上品은 ‘외점박이’라고 하여 죽절 하나에 검은 점 하나씩이 박힌 것이요, 中品은 ‘赤玳瑁’라고 하여 붉은 빛이 도는 것을 썼으며, 下品이 ‘얼룩’이라고 하여 죽절 군데군데 斑點이 있는 것을 두고 말했다고 대모갓끈을 만드는 대모의 등급을 설명하고 있다.

현전하는 갓끈 유물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 西涯 柳成龍(1542~1607), 임란 때의 의병장 郭再祐(1552~1617)가 사용한 것과, 瓶窩 李衡祥(1653~1733)과 그 후손들이 사용한 갓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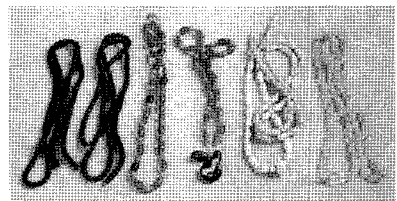
서에 유성용의 갓끈의 재료는 琥珀·骨제·竹제·烏漆木纓이고 끈의 길이는 84~86cm이고,



<그림 15> 柳成龍 갓끈[笠纓] 『文化財大觀』



<그림 16> 忘憂堂 郭再祐의 笠纓 遺品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그림 17> 李衡祥 갓끈[笠纓] 『文化財大觀』

연수는 72~74聯이며 보물 460호이다<그림 15>.

忘憂堂 박재우가 임란 당시 그가 사용하였다 고 전하는 유물 가운데 4점의 갓끈이 있다. 각각 26련·72련·179련·46련으로 연결되었고, 길이는 75cm·25cm·165cm·168cm이다. 재료는 전립에 다는 圓珠蜜花와 珊瑚로 된 戰笠纓이 있고 烏漆木纓·금패·대나무·호박 등으로 만들어 졌다.<sup>40)</sup>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소재의 충익사 소장, 보물 제671호(그림 16).

瓶窩 李衡祥의 입영 중에는 상아입영·호박 입영·옥입영·흑옥입영 등이 있다(그림 17). 여기에 옥관자 1쌍, 호박관자 1쌍도 있다. 重要民俗資料 第119号, 경북 영천군 쌍계동 후손 李秀昌 宗中이 현재 소장하고 있다.<sup>41)</sup> 이 갓끈 유물

들은 착용자가 확실하므로 갓끈의 년대를 추정하는 데 좋은 準據가 될 수 있다.

#### IV. 笠纓과 鈎纓子

구영자는 갓과 갓끈을 이어주는 금속이나 옥으로 만든 갈고리이다. S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한 끝은 갓에 또 한 끝은 갓끈 끝에 실로 고정시킨다.

『이춘풍전』에 나오는 裨將의 차림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외울망건 대모관자 당줄 줄라 질 끈 쓰고 계알 같은 제주 탕건 삼백선 돌임 계양대 제모입에 엇 돈 오 푼짜리 은구영자 산호 격자

<표 5> 古文獻을 통해 본 笠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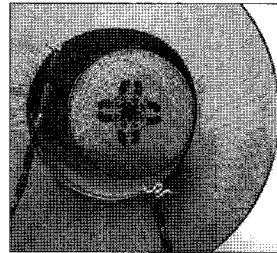
時期	內用
『經國大典』	1品에서 3品까지는 金, 玉을 사용한다. 工曹에 木纓匠 4人を 두다.
『老乞大』	笠纓에는 小珠兒, 小玻璃珠兒, 瑪瑙珠兒, 紅瑪瑙珠兒, 琥珀珠兒, 玉珠兒, 香串珠兒, 水精珠兒 [水晶珠兒], 珊瑚珠兒.
『朝鮮賦』	백성들은 草帽를 쓰되 턱에 모두 구슬을 늘인다고 함.
『備齋叢話』	高麗 辛禰가 산호 갓끈이 달린 자신의 모자를 樵童의 상수리 갓끈이 달린 모자와 바꿈.
『續大典』	戎服에는 堂上官은 紫笠에 貝纓, 堂下官은 黑笠에 晶纓이다.
『國婚定例』	王子 嘉禮에서 徵氏와 牽馬夫는 黃草笠에 木纓子를 단다.
『練齋室記述』	黑木纓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脫喪에 이르기 前까지 五十竹 黑草笠에 매었다.
『星湖僿說』	寒菴堂 金宏弼(1454-1504)은 蓮子纓[防築纓]을 사용했다.
『靑莊館全書』	各種 服飾의 着用法 가운데 笠子에는 끈을 매되 넓게 해서 안된다. 笠子에 竹纓을 드리우는 것은 간결하다. 그러나 시골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도시에 다닐 때는 不可하다.
『牧民心書』	『寒巖瑣話』에 參判 柳炯이 忠靑道 감사가 되었을 때 밀로 蜜花를 만들어 貝纓을 삼다.
『四禮便覽』	納幣時 擔幣者인 吏僕은 笠子, 珠纓, 團領, 帶, 靴로 盛服함
『梅泉野錄』	良齋 田愚는 그의 文人들에게 深衣, 幅巾, 緇布冠에 竹纓을 매고 木屐을 신게 하였다.
『大典會通』	1品에서 3品까지는 金, 玉을 사용한다. 戎服에 貝纓, 晶纓이 폐지되었다.
『궁중발기』	산호죽절과영, 금패죽절과영, 밀라죽절과영, 대모죽절과영 錦貝竹節纓, 산호쥬과영, 금패쥬과영, 밀라쥬과영, 밀라용복과영, 밀라군복과영, 산호군복과영, 금패전넙과영, 즈만호전넙과영, 어모독절과영.

<표 6> 鈎纓子의 종류와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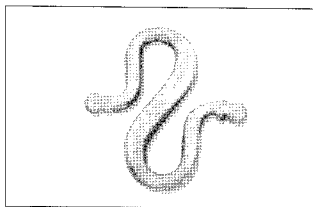
分類番號	名稱	材料 大分類	材料 小分類	年代	規格(cm)長	備考
1	銀鈎纓子	동합금제	銀	朝鮮	1.5	
2	銅鈎纓子	"	銅	"	2.5	
3	玉鈎纓子	琉璃/寶石	玉	"		個人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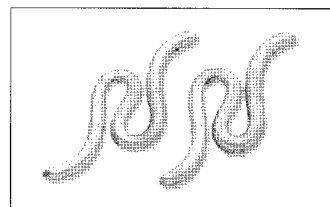
<그림 18> 哲宗御眞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그림 19> 銀鈎纓子 『우리옷과 장신구』



<그림 20> 銀鈎纓子



<그림 21> 銅鈎纓子

두 귀 밑에 달아 놓고...”라 하여 흑립에 달린 은구영자를 말하고 있다. 裨將은 監司·留水·兵史·水使 등의 지방 장관 및 중국 사신을 수행하던 보좌관이다. 현전하는 구영자는 銀鈎纓子·銅鈎纓子·玉鈎纓子 등이 있다.

은구영자는 왕조 말 갖을 쓴 초상화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진은 哲宗御眞에서 찾을 수가 있다(그림 18). 죽전립과 밀화패영을 이어주는 이 사진의 은구영자는 양 끝을 연봉형

으로 만들고 도금을 한 것이 특징인데, 傳 太祖 李成桂의 유품사진의 은이영자와 흡사하다.

咸興本宮 소재 傳 太祖 李成桂의 유품(1911년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사진 가운데 은구영자 한 쌍이 보인다. 사진 설명에는 ‘銀耳纓子’로 표기되어 있다. 이 사진의 구영자 모양을 참고할 때 구영자는 조선초기부터 후기까지 형태에 특별한 변화 없이 상류층에서 애용한 것 같다(그림 19).

<표 7> 趙大妃 陵 奉審次 따라가는 別監 笠子

所入朱笠二件		戰笠一件所入	
朱笠二件價	十四兩	戰笠一件價	三兩五錢
銀笠飾價	三十六兩四錢	內拱價	八兩
丁錢	十八兩	鎗子價	十兩
銀纓子二件價	七兩二錢	鎗道卑價	二兩五錢
虎鬚二件價	二十五兩	銀纓子價	三兩六錢
孔雀羽二件價	三十二兩	耳錢價	一兩五錢
孔雀羽纓價	一兩	貝纓價	三兩
笠家四介價	八兩	孔雀羽價	九兩
藍絲價	三錢	象毛價	十二兩
		黃絲價	四錢

<표 8> 『궁중발기』에 나타난 鈎纓子<sup>42)</sup>

纓子	수량	출처	纓子	출처
순금영자 (純金纓子)	십견 十雙	임오가례시(1882) 「新造瑠物記」	銀纓子 (전립·주립· 초립식차)	「기독교스월산가는불기」, 「笠子件記」, 「임진구월산드은드」소입 불기
도금영자 (鍍金纓子)	십견 十雙	「임오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빈궁마 누라빈혀노리게불기」		
은영자 (모란색공단끈) (두면, 전립)		「병인이월은산송악별기도고관진적 발기」	(주립)은영자공 단영자	「기묘십이월이십일성두시 점심차브」불기

은구영자의 사용 예를 또 한 가지 보면, 장서각 소장 궁중발기에 조대비 능 봉심차 따라가는 별감 입자인 주립에 은영자의 一件의 값은 3兩 6錢, 전립의 은영자도 一件에 3兩 6錢으로 가격이 같다. 즉전립이 아닌 전립에도 은구영자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

『궁중발기』에 보이는 纓子 [鈎纓子·耳纓子]의 재료에는 純金·鍍金·銀·貢緞纓子 등이다. 壬午嘉禮時는 순금영자와 도금영자가 각각 十雙이 보인다.

은영자는 「전립·주립·초립식차」로 되어 있고, 주립에는 은영자·공단영자로, 두면·전립에는 은영자(모란색 공단끈)로 되어 있다.

즉 은영자는 전립·주립·초립에 모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현전 유물인 은제품 S자형 은구영자는 납작한 형태로 한 개가 분실되었고, 양 끝을 둥글려서 디자인의 간단한 변화를 주었다(그림 20).

銅으로 만든 구영자 한 쌍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모양으로 가장 흔한 형태이다(그림 21). 구리줄 그대로 구부려서 만들고 끝만 약간 뾰족하게 다듬었다. 玉製品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데 옥을 거칠게 다듬어서 세련된 맛은 없다.

## V. 요약 및 결론

黑笠은 패랭이에서 초립을 거쳐 형성된 조선笠制의 精髓이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모로서 ‘갓’이라고 하면 곧 흑립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흑립은 조선 사대부의 관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笠纓[갓끈]은笠飾의 하나로 흑립의 단순함을 보완하며, 흑립의 아름다움을 마무리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각종 옥으로 만든 珠纓은 물론 비단으로 접어서 길게 늘이는 갓끈은 바람에 날릴 때에 역동적인 美를 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영은 갓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턱 밑에 매는 실용적인 끈이다. 일반 서민은 목면이나 갑사 류로 접어서 만드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장식적인 욕구에 따라 형질로 만든 布帛纓과 玉·마노·호박·산호·금패·수정 등으로 만든 珠纓 및 대로 만든 竹纓 등 다채로워졌다. 한때 大院君의 복식간소화로 죽영이 유행한 일도 있었다.

『四禮便覽』 納幣時 諸具에서 擔幣者의 차림이 주영을 맨 입자를 쓰고 있는 것이나, 傳 金弘道가 그린 慕堂 洪履祥의 평생도 ‘좌의정 행차’에서 주인공은 布帛纓을 매었으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貝纓을 두 번 돌려 매어 눈길을 끈다.

笠纓도 貫子와 마찬가지로 품계가 높은 자일수록 포백영으로 검박함을 보이거나 사대부라도 한량이나, 기력아비처럼 외양을 꾸며야 하는 자나, 응복차림에 監司와 같이 격식을 차릴 때에 패영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한 것 같다.

『朝鮮王朝實錄』의 입영의 기록은 대부분 사치금제에 관한 것이며, 왕의 하사품이나 외국사신의 선물용에 보인다. 『老乞大』에 보이는 9종류의 입영의 재료나, 『궁중발기』에 나오는 입영의 재료 모두 현전 유물과 대동소이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조선 초기 왕의 하사품 중 黑戰笠의 입영으로 ‘香纓子·沈東香纓子’가 있어 현전하는 전립의 입영과 다르며, 또한 哲宗御眞의 죽

전립에는 밀화패영인데 반하여 현전하는 죽전립에는 흑립의 입영과 같은 玳瑁笠纓이 부착되어 있다.

『산능발기』의 별감의 주립과 초립·전립이 모두 布帛笠纓과 貝纓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주립에 宮納笠纓과 패영 혹은 孔緞笠纓과 패영, 초립에는 궁초입영에 패영을 사용하는 것을 고찰할 수가 있는데, 패영에다 絹纓을 함께 맨 것에 시초는 영조가 지난날 온양에 거동할 때 대개 끊어질까 근심해서였는데 그 후 이것이 성풍이 되었다는 영조26년(1750)의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 무관 李聖俞(1713~1791)의 군복본 초상화에서 전립에 밀화패영과 함께 흑색 포백영을 길게 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입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 현재까지 입영이 보이는 초상화나 회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元나라와 高麗에서 유행하던 입영제도가 明나라가 건국되면서 중국에서는 사라지고 고려에만 남아 조선까지 그 풍속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국초부터 국말까지 사용한 입영의 재료는 같은 것임을 문헌을 통해 알 수가 있다.

鈎纓子[纓子·耳纓子]는 笠子和 笠纓[갓끈]을 이어주는 고리를 말하는데, 玉, 銀, 銅으로 만든 유물이 남아 있다. 『궁중발기』에는 壬午嘉禮(1882)에 순금영자 十雙과 도금영자 十雙이 있다.

傳 太祖의 유품사진에서 ‘銀耳纓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전하는 구영자와 흡사한 것을 보아 국초부터 왕조말까지 형태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다.

### 참 고 문 헌

- 1) 高宗實錄 卷1, 1年 7月 戊申.
- 2) Ibid., 卷11, 11年 5月 丙寅.
- 3) 李肯翊 (1966). 燃藜室記述 別集 卷之二 「... 祀典典故 土庶喪祭 近古國俗 脫父母喪 未及終制者 皆用黑五十竹草笠 垂黑木纓 白衣白帶以至禫過 而純吉」
- 4) 姜順弟 (1977). 韓國 笠制의 變遷에 關한 研究.

한국복식학회지 제1호, p.97.

- 5) 中央日報社 (1995). 韓國의 美 20, pp. 220-225.
- 6) 權文海 (1950). 大東韻府群玉 서울: 정양사, p.208.
- 7)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1971). 譯註高麗史 第7卷. 東亞大學校 出版部, p.631.
- 8) 中央日報社 (1995). Op. cit., p.227.
- 9) 李瀾 著,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1976). 국역 성호사설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285.
- 10) 太祖實錄 卷6, 3年 6月 己巳.
- 11) Ibid., 卷6, 3年 6月 甲午.
- 12) Ibid., 卷11, 6年 3月 己卯.
- 13) 太宗實錄 卷22, 11年 8月 丙辰.
- 14) 世宗實錄 卷43, 11年 2月 辛巳.
- 15) Ibid., 卷81, 20年 4月 甲寅.
- 16) Ibid., 卷97, 24年 9月 壬午.
- 17) Ibid., 卷112, 28年 5月 壬辰.
- 18) 睿宗實錄 卷6, 1年 7月 庚寅.
- 19) 成宗實錄 卷46, 5年 8月 辛丑.
- 20) Ibid., 卷70, 7年 8月 甲戌.
- 21) 燕山君日記 卷36, 6年 1月 乙亥.
- 22) Ibid., 卷44, 8年 6月 戊申.
- 23) Ibid., 卷56, 10年 10月 己未.
- 24) 中宗實錄 卷5, 3年 1月
- 25) Ibid., 卷25, 11年 5月 辛丑.
- 26) Ibid., 卷45, 17年 8月 乙酉.
- 27) 仁祖實錄 卷32, 14年 4月 甲午.
- 28) 正祖實錄 卷32, 15年 4月 壬戌.
- 29) 高宗實錄 卷1, 1年 7月 戊申.
- 30) Ibid., 卷11, 11年 5月 丙寅.
- 31) Ibid., 卷21, 21年 6月 乙亥
- 32) 丁若鏞 著, 茶山研究會 譯. (1980). 譯註 牧民心書 I. 서울: 創作과 批評社, p.25.
- 33) 李緯 著, 이수영 편역 (1992). 국역 사례편람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p.278.
- 34) 黃玹 著, 李章熙 譯 (1972). 梅泉野錄 서울: 大洋書籍, p.104.
- 35) 李德懋 著,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1980). 청장관전서V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22-23.
- 36) 서정원 (2003). 『老乞大』 간본을 통해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18.

- 37) Ibid., pp.17-18.
- 38) 박혜진 (2006).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  
-『궁중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109.
- 39) 趙孝順 (1988).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一志社, p.452.
- 40)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6). 文化財大觀 7,  
寶物5. 서울: 大學堂, p.280.
- 41) Ibid., p.280.
- 42) 박혜진 (2006). Op. cit., p.109.